



顯忠日에 돌아보는 ‘碑木’의 6월

함철훈

한양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



- 서울대 법대 졸업
- 숭실대 대학원 석사
- 충남대 대학원 박사

-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 KAIST 대우교수
-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
-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 역임

- 한양대 공학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나는 8년 전, 지금은 충주로 자리를 옮긴 경찰대 부근으로 이사를 왔다. 나의 사는 곳과 이어진 뒷산은 해발 300여 미터의 법화산(法華山)으로 이 부근에는 현대자동차연구소 및 법무연수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약 2.5km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하였는데 법화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이 길은 우리의 어린 시절 보아 왔던 비포장 신작로와 같이 널찍하다. 이 길 중간지역에서 90도 우회전하여 가파른 경사를 100여 미터 올라가면 산골짜기 양면에 가득 자리 잡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 공원묘지가 한 눈에 들어오고 이곳 성직자 묘역에는 2009년 지병으로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잠들어 계신다.

이곳 경계에서 우회전하여 능선을 따라 2km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법화산 정상에 이르게 된다. 사진은 이 달 초 이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도중 숲속에 내걸린 태극기와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 현장을 목격하고 찍은 것이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한다면,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마침 6월 6일은 현충일로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날이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지나면서 나는 불현듯 40 여년 전 군복무 시절(1975.5~1977.12)이 회상되었다. 올해는 남북 대화, 북미 협상과 같이 평화 분위기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지만, 1970년대 중반은 남북 대립이 첨예하였던 시절이다.

나는 1975년 5월 27세의 나이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고, 6주의 훈련을 마치고 배치된 곳이 강원도 화천 7사단이었다. 전방의 군부대들은 대부분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일 년 내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며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야간 보초를 서려면 두툼한 야전잠바를 입어야 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현장. 휴전 이후 거의 70년이 흐른 지금 세상은 변하여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스러져 묻힌 이름 모를 병사들의 그리움은 이끼 되고 그들의 서러움은 돌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그들의 비원을 호소하는 것 같다.

나는 사단사령부에 근무하였고, 여기에는 군악대가 있어 9시 야간점호를 마치면 군악병이 트럼펫 연주를 하는데 간혹 비목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고달픈 졸병의 병영생활 속에서 몸을 눕히고 밤하늘에 아스라이 들려오는 비목의 트럼펫 연주는 나의 가슴을 아련하게 하였다.

중부전선 백암산을 모태로 태어난 어느 병사의 진혼곡 <비목>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비목>

- 한명희 작사, 장일남 작곡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녘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어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맺혔네.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울어 지친

울어 지친 비목이어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강원도 화천군과 철원군의 경계에 자리한 백암산(1179m)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6.25 전쟁 당시 부근에 있는 철의 삼각지대와 함께 중부전선 최대의 격전지로 알려져 있다.

백암산은 본인이 군복무를 했던 7사단과 15사단의 관할구역으로 <비목>은 이곳의 아름다운 산하에서 발견된 어느 이름 모를 병사들의 돌무덤을 모태로 태어난 애잔하고 서정적인 노래이다. 이 곡은 1970년 지금은 없어진 TBC 방송 드라마 '결혼 행진곡'의 배경음악으로 소개되어 애창되면서 국민가곡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70을 훨씬 넘긴 ROTC 2기 출신의 한명희 중위는 백암산의 초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순찰을 돌다가 흙에 깔린 돌무더기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 그 돌무더기는 이름 없이 산화한 우리 국군 무명용사들의 돌무덤이었고, 비바람에 넘어지고 땅위에 널부



6월 6일 현충일에 무연고 묘지를 참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러져 썩은 나무조각들은 적들과 밀고 밀리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한 전우들이 세워준 '나무 비(木碑)'였다고 한다.

휴전 이후 거의 70년이 흐른 지금 세상은 변하여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스러져 묻힌 이름 모를 병사들의 그리움은 이끼 되고 그들의 서러움은 돌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그들의 비원을 호소하는 것 같다.

지인 한 분이 김동길 박사의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글을 카톡으로 보내왔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아들이나 손자들은 데모꾼으로 키워야 대성하는 세상이 되었다. 죽도록 공부해 봤자 취직도 안되고 항상 피지배적 위치를 탈피할 수가 없다. 평생에 데모꾼으로 살아온 백남기를 보라! 그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외국여행을 옆집 다니듯 가볍게 살지 않았든가? 김일성을 고무 찬양하고 미군철수를 외치며 화염병 던지고 보도블럭 깨서 투석전하면 대통령 비서실장되고 ... 국회의원 자리쯤은 따 놓 당상이다. 뼈뺏하게 정부에 비협조적이며 김정은 정책 및 전략 전술에 협조적이면 어느 날 갑자기 영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갑자기 소

설 <꺼삐딴 리>가 떠오르네. 양손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들고 어느 걸 흔들어야 될 건지를 잘 판단만 하면 된다. 이렇게 쉬운 인생을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왔던가? 나라를 지키다 죽으면 개죽음이다. 데모를 하다 죽으면 열사가 되고 ... 그 후대는 돈 걱정, 직장 걱정 없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무조건 매국노 독재자라 외치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 음해와 모략으로 일관하면 성공한다. 이제 나는 김일성 배지를 만들고 인공기를 만들어 판매할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른다. 이제 애국가 대신 김일성을 찬양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더 사랑해야지. 흘러간 세월 60년, 다가올 세월은 불만과 협잡으로 살아간다면 김대중 선생의 사진 옆에 내 사진도 걸리게 될까! 아 ~ 답답한 세상이여! 진실이 시궁창에 목욕을 하고 거짓이 빛을 발하는 삼천리 금수강산! 결국, 빛이 어둠을 내몰지 못했도다. 역장이 무너지집니다.”

나라를 위해 이슬처럼 사라진 호국영령들께서 오늘의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 분들의 감회가 어떨까 생각나는 계절이다. ☺